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 3480 2100

팩스 02 3480 2704

보도자료

2022. 5. 6.(금)

자료문의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

전화번호 : 02-3480-2290

주최임자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홍완희

제 목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 대규모 마약류 밀수 지속적 증가, 외국인 사범 사상 최다 등 -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는 2022. 5. 6.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

【마약류 범죄백서(1990년 ~ 2021년)】

- 1989년 대검찰청 마약과 신설을 통해 전문적 마약수사체제를 확립 하면서, 마약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사, 연구 및 정책수립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1회 발간

- 4개의 장(① 마약류 개요 및 세계 마약류 동향, ② 마약류별 일반현황, ③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④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으로 구성

※ 백서 게재: 대검찰청 홈페이지>검찰활동>주요수사활동>마약 조직폭력범죄수사>자료실

- 2021년 마약류사범은 16,153명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하였으나, 3년 연속 16,000명 상회, 대마 사범은 3,777명으로 지속적 증가

※ 대마사범 '17.(1,727명)→'18.(1,533)→'19.(2,629)→'20.(3,212)→'21.(3,777), 4년간 118.7% 증가

- 밀수사범은 807명이며,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역대 최다인 1,295.7kg으로, 전년(320.9kg) 대비 303.8% 증가함

※ 압수량 '17.(154.6kg)→'18.(414.6)→'19.(362)→'20.(320.9)→'21.(1,295.7), 4년간 738.1% 급증

- 특히 주요 마약류* 압수량이 1,179kg으로 전년(190kg) 대비 520.5% 증가

※ 필로폰 '19.(87.3kg) → '20.(64.1) → '21.(569.9) / 코카인 '19.(106.9kg) → '20.(47.9) → '21.(435.7)

* 주요 마약류: 필로폰, 코카인, 대마, MDMA, 야바, 헤로인 등 9종

- 주요동향은 ① 국제공조로 마약류 대량 밀수 적발 및 압수량 대폭 증가, ② 외국인 마약류사범 역대 최다 적발(2,339명, 19.5% ↑), ③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증가(450명, 43.8% ↑) 등임

I

2021년 마약류범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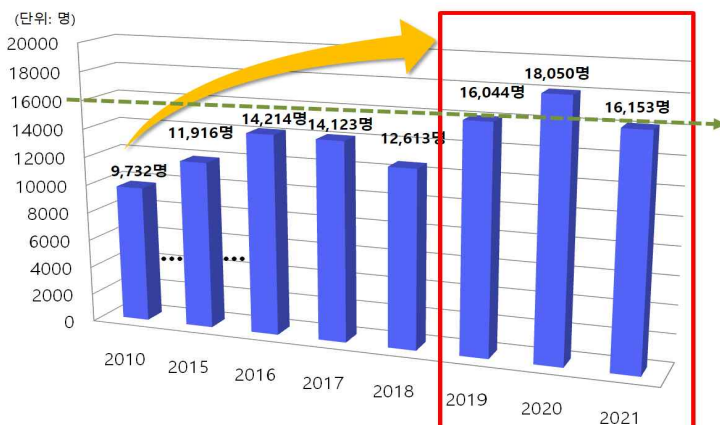
1 마약류사범 16,153명 적발, 3년 연속 16,000명 상회

- 2021년 마약류사범은 16,153명으로,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 밀수입·판매 보편화, 10대·20대 및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등으로 인해 3년 연속 16,000명을 상회하고 있어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 필요
 - ※ 2021년 마약류사범은 전년(18,050명) 대비 10.5% 감소, 이는 ① '21.부터 검찰의 직접 마약수사범위 축소(500만원 이상 밀수출입 등만 수사), ②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 영업시간·인원제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대마사범은 3,777명으로, 유럽 일부 국가들과 캐나다 및 미국 일부 주의 대마 합법화, 해외유학생의 대마 접촉 증가 등에 따라 5년간 163.2% 급증
 - ※ 대마사범 '06.(835명) → '11.(1,189) → '16.(1,435) → '20.(3,212) → '21.(3,777)
- 외국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 검찰·세관 합동으로 공·항만에서의 마약류 차단에 주력한 결과,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 4,045명 단속

공급사범 (밀수·밀매 등) 적발 추이

- ▶ 공급사범 중 검찰이 단속을 주도한 밀수사범은 '16.(383명) → '17.(481) → '18.(521) → '19.(783) → '20.(837) → '21.(807)으로 2년 연속 800명대 유지
- ▶ '21.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국내 마약류 밀매 등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전체 마약류 공급사범 적발 인원은 전년(4,793) 대비 15.6% 감소함

【마약류사범 적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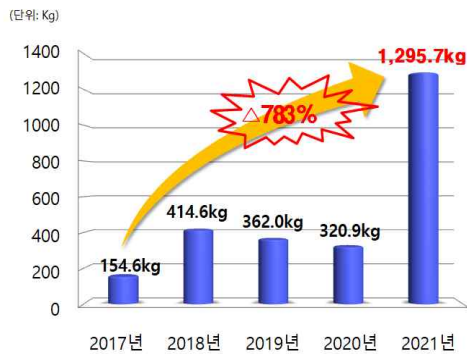
【밀수사범 적발 추이】



② 마약류 대량 밀반입 급증

- 밀수사범은 807명으로 지난해(837명)와 비슷하지만,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1,295.7kg으로 전년(320.9kg) 대비 303.8% 증가
 - 특히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179kg으로 전년(190kg) 대비 520.5% 급증
- *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야바, JWH 및 그 유사체, MDMA, 헤로인, 생아편, 해시시

【최근 5년간 압수실적 현황】



종류(g)	2020	2021	증감률(%)	
필로폰	64,114	569,866	788.8 ↑	
대마초	37,333	91,240	144.4 ↑	
코카인	47,948	435,741	808.8 ↑	
신종 마약	YABA	22,786	50,137	120.0 ↑
	JW-계열	3,166	18,747	492.2 ↑

주요 마약류 대량 밀수 적발 사례

■ 멕시코 궤 필로폰 402kg 압수

- ▶ '19. 12.경 및 '20. 7.경 2회에 걸쳐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kg을 대형 항공기 부품 (헬리컬기어)에 은닉하여 선박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후, 그중 500kg을 호주로 밀반출한 피의자를 '21. 7.경 검거하고 국내에 은닉한 필로폰 402kg을 압수

■ 페루 궤 코카인 400kg 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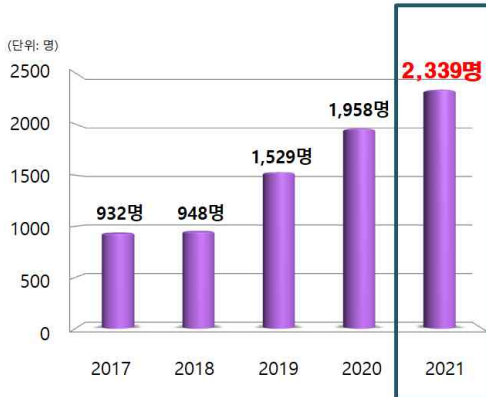
- ▶ '21. 10. 페루 카야오항에서 출발하여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일본을 경유하여 부산신항에 도착한 선박에서 코카인 400.4kg 적발하여 압수

③ 외국인 마약류사범 사상 최다(2,339명) 적발

-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사례 급증
- 적발된 외국인은 2,339명으로 전년(1,958명) 대비 19.5% 증가, 전체 사범 중 점유비율도 14.5%로 매년 증가 추세

※ 국적별로는 태국(888명) > 중국(504명) > 베트남(310명) 順

【최근 5년간 외국인사범 추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마약사범	14,123	12,613	16,044	18,050	16,153
외국인 마약사범	932 (6.6%)	948 (7.5%)	1,529 (9.5%)	1,958 (10.8%)	2,339 (14.5%)

-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증가하였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자국민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임

④ 국제공조수사로 대규모 마약범죄 적발

- 30여 년간 구축한 검찰의 국제공조체계를 이용하여 다국적 마약범죄 조직들에 의한 마약류 대규모 밀반입 사건 다수 적발

대규모 국제공조수사 대표 사례

- ① '21. 1.~3. 말레이시아發 필로폰 16.4kg 국내 적발 → 대검, 말레이시아 경찰에 발송인 인적사항 등 주요 정보 실시간 제공 → 말레이시아 경찰 위 정보 토대로 쿠알라룸푸르에서 필로폰 밀조시설과 다국적 마약밀매단 13명 검거, 필로폰 12.2kg와 케타민 64kg 등 도매가 54억 원 상당 마약류 압수(현지 언론보도)
- ② '21. 6. 대검·인천지검·인천공항세관이 미국 마약청(DEA)·카자흐스탄·대만 유관 기관과 공조, 카자흐스탄發 한국 경유 대만행 필로폰 추적 수사를 통해 대만에서 국제마약밀매단('North Union Gang') 10명 적발 및 필로폰 81kg 압수
- ③ '19. 12.경 및 '20. 7.경 2회에 걸쳐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kg을 국내에 밀반입한 후, 그중 약 500kg을 호주로 밀반출(402kg 국내 압수)한 호주 국적의 주범 A를 국가정보원·미국 마약청(DEA)·호주 경찰·베트남 마약통제국과 공조하여 '22. 2.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 및 국내로 송환(대검·부산지검)

5 19세 이하 마약류범죄 증가

-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450명으로 전년(313명) 대비 43.8% 증가, 4년 전보다 278.2% 급증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적발 추이>



-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 증가

II 향후 대응 방안

1 국제 마약범죄조직 척결에 검찰 수사역량 집중

■ 해외 유입 마약류 사전 차단에 주력

- 국내 유통 마약류는 전량 해외에서 밀반입

- '90년대 초반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밀조사범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 제조 기술자들이 외국으로 도피하였고, 그 이후부터 국내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외국에서 밀수로 공급됨

- 국내 마약 밀반입 차단 중추적 역할

- '89.부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¹⁾ 개최, '12. 아·태마약 정보조정센터(APICC)²⁾ 설치·운영, '07.부터 마약퇴치 지원사업³⁾

1)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89년 대검찰청이 마약류 범죄에 국제적으로 공동 대처하기 위해 신설하여 매년 개최, 미·중·일, 유럽·아프리카 등 20여 개국과 UNODC,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 국내 마약관계관 180여 명 참석, 아시아 최대의 국제마약회의

2) APICC(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 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12년 대검 마약과에서 창설,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간 정보교환과 수사공조 위한 국제협력체

3) 마약퇴치 지원사업: 국내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07년부터 아세안·중앙아시아

시행 등을 통한 긴밀한 국제공조로 마약류 밀반입 억제

※ 마약퇴치 지원사업: '10. ~ '21. ODA 예산으로 캄보디아 등 8개국, '16. ~ '18. 한-메콩 협력기금으로 메콩 5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베트남 및 방글라데시(KOICA 협력)에 수사차량 및 단속장비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 국외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국내 마약류 유입 원천 차단

- 30여 년간 구축해 온 국제공조 체계 통해 UNODC, 미국 DEA·태국·중국 등 30여 개국과 실시간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 체계 구축

※ 국가 간 수사공조, 국외 도피 한국인 마약사범 소재파악 및 검거, 한국행 수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 요청 통해 국내 유입 억제에 중점

- 검찰수사관 태국 파견('20. 11. ~ 현재) 및 태국 수사관 대검 파견('21. 5. ~ 현재)하여 실시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진행

※ 태국과 수사관 상호 파견을 통한 공조수사망 강화하여, '22. 1. ~ 3. 태국發 마약류 압수량(7.6kg) 전년 동기간 (13.9kg) 대비 45.3% 급감

국제 협력을 통한 국내 마약류 유입 사전 차단 사례

- ① '20. 7. 베트남 마약통제국(SODC) 측과 공조하여 호치민에서 인천항으로 출항하려던 선박 컨테이너에 은닉된 필로폰 40kg을 적발하고 한국인 마약사범 2명 검거하여 마약류 국내 유입 사전 차단
- ② '21년 태국 마약청 파견 검찰마약수사관과 태국 마약청이 공동으로 방콕에서 국내로 발송하려던 화물에서 필로폰 1.4kg, 야바 2,000정, MDMA 3,537정, 케타민 2.9kg 및 대마초 2.1kg을 적발하여 국내 유입 사전 차단

●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긴밀한 국제공조체계 활용하여 국외도피 우리나라 마약사범 32명 현지 검거 후 강제송환

※ 국외도피 마약사범 강제송환(명): '17년(4)→'18.(6)→'19.(3)→'20.(4)→'21.(3)

국제 협력을 통한 마약사범 국내송환 사례

- ① 동남아를 중심으로 국내 마약류 밀수를 주도한 속칭 '아시아 마약왕' A○○를 태국 현지 출장하여 검거 후 국내 송환('20. 인천지검)

국가 중 국내로의 마약류 유입국이나 단속역량이 약한 국가에게 마약류 단속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②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902kg(도매가 902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주범 B○○을 호주, 미국, 베트남과 공조하여 호치민에서 검거 후 국내 송환('22. 부산지검)

■ 외국인 마약류사범 밀수·유통 적극 차단

-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태국·베트남 등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출국 전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마약류 밀수·판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적극 의율하여 엄단

외국인 마약 판매 조직을 엄단한 대표 사례

'20. 2.~'21. 2.경 경기 남부 일대에서 舊 소련 지역 출신 고려인들로 구성된 외국인 20여 명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을 원료로 만든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를 조직적으로 제조·판매하다 적발, 조직원 전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여 수괴 징역 10년, 중간 간부 징역 5~7년 등 중형 선고('21. 수원지검)

■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마약 수사 공백 문제 해결 필요

- '21. 1.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및 밀수 목적 소유·소지' 범행에 대하여만 직접 수사 개시 가능
- 검찰은 밀수범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여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공범을 수사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여야 함

검사가 입건한 밀수사범의 공범에 대한 수사 불가

야바를 밀수한 혐의로 검사가 인지·구속한 피의자(A)가 조사 과정에서 다른 공범(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진술하고, 국내 유통책(C)에게 야바를 판매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더라도, 검사가 공범(B)의 필로폰 투약 혐의, 국내 유통책(C)이 A로부터 야바를 매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없음

- 밀수사범 검거 시 신속히 유통망을 추적하여 판매·중개상을 일망 타진할 필요가 있으나, 경찰에 요청하여 수사할 경우 시간이 지체 되어 그 사이 범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음

- 사회에 마약이 확산되고 나면 다시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마약류 유통을 강력하게 억제할 책무가 있음
- '21. 1.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류 수사 기능이 축소되어, 국가 전체의 마약통제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검찰이 마약류 밀수사범뿐만 아니라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② 마약류 범죄수익금 철저 환수

■ 조직적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박탈 철저

- 대규모 공급·유통조직에 대하여 가중 처벌조항이 있는 마약류 특별법을 적용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범죄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
- 외국인 근로자의 마약밀수 증가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 건수도 150건으로 전년(115건) 대비 증가,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 공범·국내 유통 내·외국인 등 공범관계 철저히 분석하여 환수 조치 예정

※ 범죄수익 환수: '17년 100건(16.9억)→'18년 138건(76.1억)→'19년 218건(89.4억)→'20년 115건(87.6억)→'21년 150건(47억)

③ 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한 치료재활 확대 및 예방활동 강화

■ 청소년과 단순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활 강화

- 청소년·단순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보다 '사람중심'의 치료·재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특성, 예방교육·치료재활 현황과 문제점 등 정책 연구자료를 식약처, 교육부 등과 공유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
 - ※ 「10대·20대 마약류사범 증가 대응방안」 정책 연구자료 발간('22. 5)
- 청소년이나 단순 투약자는 교육조건부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중독자는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는 등

중독 정도에 따른 맞춤형 처분으로 치료·재활 효과 제고

※ 조건부 기소유예: '17년(735명) → '18.(475) → '19.(1,156) → '20.(1,035) → '21.(1,440)

■ 교육·홍보활동 지속 추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상대로 마약의 폐해와 관련 법 규정 교육을 실시하여 재범 방지

※ 2016. 5.부터 검찰수사관이 재범방지 교육 강사로 참여

- 통일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인천국제공항,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마약폐해, 자수 및 신고포상 등 안내문 게시 ☐